WKUH 뉴스레터
원광대학교병원

제생의세

원광대학교병원 소식을 더 빠르게 만나기
홈페이지 www.wkuh.org/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kuh2030
페이스북 www.facebook.com/wkuh2030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wkuh_org/
YouTube에서 '원광대학교병원'을 검색하세요

제 283호 2022년 1월 1일 (토)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중심, 원광대학교병원

신년사

뉴노멀 시대, 역동적인 자세로 혁신을 준비합시다.

임인년 새해에는 우리 병원의 내실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자 사람중심의 경영철학에 더욱 중점을 두고 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간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과 질적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나아가 최신 의료 IT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역동적인 혁신으로 내실을 기해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적화된 뉴노멀 의료시스템을 준비합시다.

코로나19 시대에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은 K-방역의 뒤에는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는 피할 수 없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합시다. 일부 병원계에서는 감염병Zone과 비감염병Zone 구분으로 외래, 응급실,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의 듀얼 트랙 운영과 보호자 간병인 관리시스템의 재편을 통해 병원내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적극 검토하여 상설적 감염병 대응 시스템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나갑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병원은 자연스럽게 O2O(Online to Offline·온오프라인 연계)병원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대면진료에 기반을 둔 현재의 진료체계만으로는 뉴노멀로 불리는 새로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부응 할 수 없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접촉과 비접촉,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효율적으로 융합해 진료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진료 모델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둘째, 차세대 EMR 시스템 구축으로 첨단 의료를 선도해 나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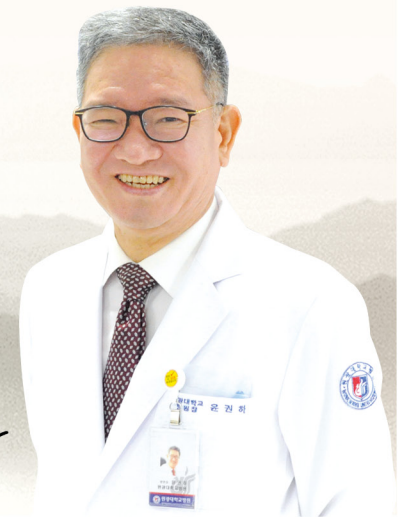
현대의 의료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패러다임에 발맞춰 미래형 의료기관으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병원이 구축하는 차세대 EMR 시스템은 우리병원의 핵심축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도약 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차세대 EMR 시스템 구축으로 환자에게는 맞춤형 진료를, 의료진에게는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기존의 OCS 및 PACS 등과의 유연한 연계시스템을 통해 환자 진료를 위한 모든 기록과 자료들을 표준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의료데이터의 활용으로 첨단의료를 선도해 나갑시다.

셋째,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시다.

우리병원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영 기반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경영 효율성 향상과 실현을 위한 전사적 목표관리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아가 이것이 지속 성장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활동을 적극지원하고 협력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조직의 혁신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환자중심 병원, 행복한 병원'문화를 만듭시다.

환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신속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환자중심 병원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 구성원이 행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웃음이 피어나는 행복한 병원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원광대학교병원장 윤건하

학교법인 원광학원 제14대 성시종 이사장, 원광대학교병원 초도순시

학교법인 원광학원 제14대 이사장으로 부임한 성시종 이사장이 지난 30일 초도순시차 원광대병원 현황 브리핑과 현장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브리핑에 참석한 성 이사장은 초도순시를 통해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원광대병원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료와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익산이 의료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1년 연말 시상식 개최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7일 보직교수 및 팀(실)장, 중간관리자 이상 회의에서 2021년도 각 분야별 연말 결산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연말 결산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임상교수상 5명(호흡기내과 양세훈, 신경외과 김대원, 소화기내과 조훈길, 대장항문외과 김근영, 진단검사의학과 조지현) ▲최우수 진료(지원)과상 2개부서(신경외과, 병리과) ▲최우수 부서상 10개부서(52병동, 55병동, 73병동, 응급실, EICU, 감염관리팀, 진단검사의학과, 관리팀, 의료정보팀, 진료협력센터) 등이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이외에 이달의 의사상, 병상가동률 우수병동, 친절직원 시상이 있었다.

‘2021 올해의 인턴상’ 시상

교육수련부 최기훈, 이종준, 이성호 인턴이 ‘2021 올해의 인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올해의 인턴 최우수상 최기훈, 올해의 인턴 우수상 이종준, 올해의 인턴 모범상 이성호 등 3명은 지난 1월 4일 외래 1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직교수 및 팀(실)장, 중간관리자 회의에서 ‘2021 올해의 인턴상‘을 수여 받았다.

‘2021 올해의 인턴상’을 수상한 최기훈, 이종준, 이성호 인턴은 수련 기간 중 진료 역량이 높고, 동료 간 화합과 배려, 뛰어난 수련 능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 인정돼 본 상을 수상했다. 특히, 환자들의 깊은 신망과 동료 인턴 및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추천 투표로 이번 상의 주인공이 되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윤권하 병원장은 “인턴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하여 각과 과장,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의 지도하에 배운 지식을 토대로 실지 환자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임상수련하는 과정이다”며 “생명존중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과 의학발전을 통한 인류 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수련 받는 모든 의사가 최고의 지성과 인성을 겸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디스크로 착각 쉬운 ‘강직성 척추염’, 급여확대가 답 [기고]

관절류마티스내과 **이명수** 교수

비교적 젊은 남성에게 발생하는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관절(엉덩이 부위)에서부터 시작해 척추를 따라 염증이 진행해 결국에는 강직이 되는 질환이다. 오랜 기간이 지나 경추까지 침범하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강직성 척추염의 통증은 일반적인 요통과는 달리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거나 활동하면 호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음에는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증상이 지속되면 대증요법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또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할지 잘 몰라 류마티스 질환 전문가에게 뒤늦게 찾아가 수년이 지난 뒤에야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척추의 강직이 진행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이 상당하고 척추 외에 고관절을 침범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관절 치환 수술을 받게 되기도 한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척추 골절이 일반인보다 2배 가량 흔하게 발생하고 척수 손상의 확률도 높다. 또 경추를 침범할 경우 불완전 탈구 등도 나타날 수 있어 환자의 진단 및 치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평생 한 번만 보험이 되는 MRI 검사의 보험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직성 척추염 진단과 치료에 급여 확대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통증에서 벗어나고 일상을 회복해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마취통증의학과 김연동 교수 대한통증학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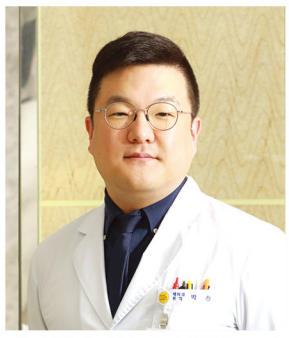
마취통증의학과 **김연동**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김연동 교수가 제72차 대한통증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목 통증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연구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김연동 교수는 목 부위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후관절에 대한 정밀 주사 치료를 분석하여 “Fluoroscopic Findings of Extra-Cervical Facet Joint Flow and its Incidence on Cervical Facet Joint Arthrograms”란 제목으로 발표한 연구 논문이, 지난 1년간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총 120여편의 연구 중 임상부분 우수포스터로 선정되었다.

김연동 교수는 연구를 통해 영상유도 주사를 통해 목 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후관절 증후군의 효과적인 치료와 동시에 영상 분석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고난이도 주사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통증 전문 의료진에 의해 정밀하고 안전하게 시행한다면 불필요한 척추 수술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췌간이식외과 박찬·박동은 교수 연구팀
국제간췌장외과 심포지엄 ‘베스트 포스터상’ 수상



간담췌간이식외과 **박찬** 교수

간담췌간이식외과 박찬·박동은 교수 연구팀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국제간췌장외과 수술 심포지엄에서 ‘베스트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박찬·박동은 교수 연구팀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발생 가능한 담관 손상의 예방을 위한 수술 전 담관 조영술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논문 포스터로 이상을 수상했다.

담관조영술은 담석증, 담낭염 등 다양한 경우에 시행되는 술기로 본원에서 연간 400례 이상 실시되고 있는 수술법이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보편화된 수술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수술 이후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남을 수 있는 수술 중 담관 손상 예방을 위한 영상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 밝혔다.

‘2021 전라북도 원내 화학재난의료 도상 훈련’ 실시

지난 6일 병동 2관에서 ‘2021년 전라북도 원내화학 재난의료 도상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원광대학교병원,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화학손상연구회, 전북대학교병원이 공동 주관한 가운데 전라북도 권역 내 화학 재난 발생 시 거점 병원의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열렸다.

지역 내 대규모 화학 재난 사고 발생 시 재난 거점 병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원내 발생 상황 수용과 상황 전파, 원내로 유입되는 다수 사상자에 대한 대응방안 및 체계 수립·복구에 초점을 뒀다.

원광대병원은 이번 원내 재난 대응 강화 훈련에서 의료기관 중심의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을 이용, 개인별 대응 능력 향상, 화학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 강화, 유관기관 간 사전 인지를 통한 지휘체계 파악, 원활한 소통 유도, 전문화된 거점병원 능력 강화, 협업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과 전문 인력 양성 효과를 기대했다.

‘마이 헬스웨이’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병원은 아이티아이즈(대표 이성남)와 지난 14일 원광문화센터 5층 회의실에서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및 실증·확산 추진사업’(이하 마이 헬스웨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이 헬스웨이 사업은 각 병원에 흩어진 의료 데이터를 개인이 손쉽게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원광대병원은 지역 거점 병원으로써 호남지역의 1, 2차 의료기관과 연계,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제 등의 중요한 사안들에 전문가로 참여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컨설팅 역할을 수행, 수도권에 집중화된 의료서비스의 지역 평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이 헬스웨이 사업은 병원의 의료 기록 뿐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및 각종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 개인이 생활 속에서 체득하는 데이터(혈압, 혈당, 운동량, 식단 등)를 표준화하여 자가 건강관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개인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직접 보관, 관리함으로써 병원 방문 시에도 본인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북익산 응급의료권역 협의체’ 회의 개최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난 15일 ‘전북익산 응급의료권역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광대병원 외 권역 내 5개 병원(익산병원,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서해병원, 보령아산병원)이 모여 응급의료 치료, 이송에 관하여 병원들의 협력과 역할에 대해 점검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의에 따라 ▲익산, 군산, 서천, 보령 등 응급의료 권역 간 효과적이고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 관리와 응급환자 유기적인 상호 협력 대처 ▲중증환자 치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이 논의 됐다.

황용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이 허망하게 희생되지 않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간 원활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권역 내 대형재난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의료를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과 응급환자 치료로 응급의료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 친절 아카데미 교육’ 실시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25일 외래동 4층 대강당에서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 친절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개선을 도모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원광대병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사의 김치 나눔 전달식’ 열어...

원광대학교병원과 원누리후원회가 지난 9일(목) 익산 원창식품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사의 김치 나눔 전달식‘을 열어 온정을 나눴다.

올해 ‘감사의 김치 나눔 전달식’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원광대병원 교직원 기부금과 원누리후원회 후원금을 합해 약 1,600만 원 가량의 김장 김치 3,400kg을 마련, 김장 김치 2,200kg은 익산시 읍, 면, 동 저소득층 220 세대에 전달하고 1,200kg은 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6곳에 전달했다.

원광대병원 간호부, '이리보육원'에서 사회봉사 활동

원광대학교병원 간호사회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중한 사회 분위기속에서도 익산시 지역 아동복지센터인 이리보육원을 찾아 온정의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 마음 한켠을 훈훈하게 했다.

원광대병원 간호사회 회장인 이안생 간호부장, 차연화 간호팀장을 비롯한 간호사회 주요 관계자들은 훈훈한 기부금과 다과를 준비해 이리보육원을 방문했는데 올해로 11년째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전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전라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주민철)가 지난 12일, 19일, 26일 3회에 걸쳐 전북 지역 특수학교 별관 2층에서 장애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성폭력 예방교육은 피해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 위기 상황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함양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 아래 기획되었다.

이번 성폭력 예방 교육은 지난 13일에는 ‘슬기로운 사회생활 예절’, 19일에는 ‘건전한 이성 교제’, 마지막 26일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 등 3회에 걸쳐 익산시청소년문화센터 이숙민 센터장이 강사로 나와 여성장애인이 짊어지고 나가야 할 주제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나눴다.

원광대학교병원 교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랜선합창 '걱정말아요 그대'

원광대학교병원이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혼란과 불안 속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들과 교직원들에게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이 베어 있는 곡(걱정 말아요! 그대)으로 지난 24일 의료진을 비롯한 13개 직종, 54명의 교직원이 참여 해 감동으로 전하는 '랜선 합창'을 진행했다.

교직원 50여명은 각 소절마다 파트를 배분 해 개별 녹음하거나 그룹별로 노래를 부른 후, 이를 바탕으로 합창곡 형태의 영상으로 편집하여 모두가 하나되는 앙상블로 힐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명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지친 모두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주고자 대면 합창이 어려운 상황에서 랜선 합창 영상을 제작했다"며 "교직원들이 각자의 거리에서 소통과 화합의 조화로운 음악의 하모니로 병원과 우리 사회에 따스함이 녹아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021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동 성료

원광대학교병원 운영 전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건강보건관리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운영해 왔던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지난 11월 24일 김제시에서 열린 31회차를 마지막으로 성료됐다.

주민철 전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센터는 권역 내 장애인이 건강권과 의료 복지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지역 내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2 '정년퇴직 맞이 추억 여행' 실시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2022년도 정년퇴직 예정 직원 대상 '정년퇴직 맞이 추억 여행'이라는 제하의 제주도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랜 기간 본원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왔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감사, 그리고 그간 병원 생활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해 보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 보는 '정년퇴직 맞이 추억 여행'을 목적으로 했다.

김종윤 원광대병원 행정처장은 "오늘의 이 연수는 헤어짐이 아닌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 서 탐 방

병원 행정의 중심, 총무팀을 소개합니다.

총무팀은 행정처의 최선임으로 병원 행정의 근간이 되는 부서이며, 교직원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급변화 되는 의료법, 노동법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규 시스템을 수립중에 있으며,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 발생 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총무팀은 인사계, 서무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익섭 총무팀장을 비롯하여 문수덕 인사계장, 조상현 서무계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계는 신규직원 채용, 인사관리, 급여지급, 4대보험, 각종 평가 등 병원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무계는 대내·외 문서관리,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 인·허가 변경 및 각종 법률자문 및 대외기관 관리 등 병원의 대표성을 띄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 우리 병원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

총무팀은 지난 1년간 20회 이상의 채용과정을 걸쳐 채용 45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기록의 전산화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입사 후 신규직원이 빠르게 병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신규직원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산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입사자들에게 편리한 행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채용 데이터를 축적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립하였다.

▲ 급변하는 노동 및 의료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

총무팀은 최근 급변하는 노동 및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문 변호사 및 노무사를 위촉하였다. 주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무사와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전산시스템 및 근로체계를 변형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통해 실무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법률적인 서포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례없는 코로나19 재난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에 봉착한 병원에서 총무팀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였다. 2020년 2월에 코로나19 관련 총괄대응위원회를 발족하여 각종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원내 감염이 발생하였을 때, 익산시청과의 공동상황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방면에서의 공조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최근에는 교직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주1회 PCR검사를 권고하는 등 교직원과 내원객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대외기관과의 다양한 MOU 체결 추진

총무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익산시와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익산시경찰서와 MOU를 체결하여 원내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 경찰관의 상주근무를 이끌어낸바 있다.

총무팀은 대내적으로는 교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병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대외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총무팀은 오늘도 상급종합병원에 걸맞는 최고의 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제142회 친절직원

63병동 김수진 간호사

저도 환자나 보호자가 될 수 있고 그분들 또한 누군가의 가족일 거라는 생각으로 사소한 관심 하나가 모여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환자분들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설명 그리고 배려하는 자세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사선종양학과 우승범 방사선사

저는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방사선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사입니다. 저희 과 일원인 의사, 간호사, 의학물리사, 방사선사 모두가 노력했기에 받을 수 있었던 상이라고 생각하며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만을 생각하여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의 간호사

권역외상집중치료실 심은신 간호사

이달의 간호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환자 간호에 힘쓰고 있는 권역외상집중치료실 가족들 모두에게 주는 칭찬으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주시는 권예순 수간호사 선생님과 권역외상집중치료실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간호사로서 병원에 도움이 되고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의 글 : 권역외상집중치료실 **권예순** 수간호사

심은신 간호사는 권역외상집중치료실 퍼스트로 그 역할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병동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솔선수범하고 차분하게 대처하여 병동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었고, 외상환자의 욕창건수를 줄이며 신규 간호사가 부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주며 부서 간호사들의 정서적 지주가 되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는 교직원들의 칭찬 릴레이로 병원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광인들을 만나봅니다.

영상의학과 최보름 방사선사

영상의학과 최보름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병원에서는 선후배들과 어우러져 일하다 보면 업무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 양 방향 모두 믿음이 가는 이가 있는데 최보름 선생이 바로 그런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중간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으며 과에서 실시하는 촬영왕 상을 두 번이나 차지할 정도로 업무능력이 우수합니다.

또한 자신의 공을 의연하게 동료들과 함께 나눌 줄 알고 선후배와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친절.자상한 것은 물론이고 특히 신생아 및 어린아이들에겐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외래환자가 휠체어나 침대로 보호자 없이 오셨을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직접 로비까지 모셔다드리며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까지 세심히 챙기는 모습도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최보름 선생을 추천합니다.

추천인 : 영상의학과 **류근휘** 방사선사

병리과 이혜원 임상병리사, '육안전문임상병리사 취득'

원광대학교병원 병리과 이혜원 임상병리사는 지난 12월 4일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에서 실시한 제3기 육안전문임상병리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육안전문임상병리사는 육안검사 경력이 3년이상인 임상병리사가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시험으로 선발한 이후 총 8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최종시험을 통과한 인력에만 주어지는 자격이다.

육안검사는 병리검사 과정 중 병변을 찾는 첫 단계로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만큼 그동안 병리과에서는 교수들의 지도와 QI활동, 직무교육 등을 통해 업무 숙련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과 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광대학교병원 병리과에 2명의 육안전문임상병리사를 보유하게 되었다.

직 / 원 / 동 / 정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신규임용 인사발령 기준

의사

• 기아㈜오토랜드광주의원	윤철웅
• 재활의학과	이은선

진료지원 · 행정

• 53병동	김순심
• 61병동	이강순 신진욱
• 63병동	황경희
• 간호부 병동	최덕례 이미덕 박숙희
• 건강검진팀	강채훈
• 관리팀	정정재
• 영양팀	윤효정
• 진단검사의학과	노현지 박연규

간호사

• 45병동	배달
• 52병동	이선희
• 53병동	이하영
• 63병동	이지연
• 91병동	서한울 장여진
• 감염관리팀	김도연
• 권역외상집중치료실	장은성
• 수술실	남승연
• 외상소생실	정유준
• 진단검사의학과	한다슬
• 진료협력팀	이세은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11월 퇴직

진료지원 · 행정

• 53병동	정영아
• 61병동	구은숙
• 63병동	정련희 김명옥
• 간호부 병동	강옥선
• 건강검진팀	김다슬 유영미
• 관리팀	박종래
• 관재팀	정진균
• 영상의학과	윤병운
• 영양팀	백정훈 추선미
• 의료정보팀	한원준
• 진단검사의학과	신상희

간호사

• 21병동	장성실
• 45병동	문희 정선미
• 45병동	최다은
• 53응급병동	김혜리
• 55병동	윤주희
• 61병동	윤혜영 진주
• 63병동	김도연 박영숙
• 83병동	원가연
• 91병동	김하정 정소리
• 간호1팀 신경외과	진범용
• 간호외래 비뇨의학과	신혜리
• 권역외상집중치료실	김지희 오정환
• 권역응급집중치료실	윤세원
• 예방사업계	서은진
• 응급실	정진영
• 임상연구보호센터	최인영
• 진료협력팀	한윤세

복잡한 '설소대 수술'도
수면마취로 안전하게

이비인후과 **이진** 교수

아이들 중에서 간혹 혀가 짧아 발음이 잘 안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혀에 있는 '설소대'가 비정상적으로 짧은 '설소대단축증'의 증상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설소대단축증은 무엇이고,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설소대와 설소대단축증이란?

설소대란 혀의 아랫면과 입의 바닥인 구강저를 연결해주는 끈과 같은 막으로, 이 설소대가 비정상적으로 짧아 혀운동에 제한을 주는 질환을 설소대단축증(ankyloglossia) 혹은 혀 유착증(tongue tie)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하며, 유병률은 신생아에서 4%~16%로 문헌마다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술이나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소대 단축증의 증상

설소대가 짧아 나타나게 되는 증상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영아에서는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해 성장 및 발달 지연이 생길 수 있고,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수유 시에 가슴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엔 발음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데, 짧은 설소대가 혀를 잡고 있어 혀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발음 및 조음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혀 끝이 윗잇몸에 닿아 내는 소리인 일부 치조음(ㄷ,ㄹ,ㅅ) 발음에 문제를 보이는데, '호랑이'를 '호낭이'로, '사슴'을 '다듬'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가끔은 설소대단축증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치아의 맹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정교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소대단축증 환자의 진찰 소견으로는 혀를 위로 들어올렸을 때 짧은 설소대를 보이면서 입천장에 혀가 닿지 않거나, 혀를 내밀었을 때 혀의 끝이 하트 모양으로 당겨지며, 혀가 아랫 입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소견을 보입니다.

설소대단축증, 어떻게 치료하나요?

마취 및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의료진마다 견해 차이가 있으나, 보통 만 1세 미만의 영아에서는 마취 없이, 의료용 가위로 설소대를 단순히 잘라내는 방식으로 수술합니다.

하지만, 만 1세 이상에서는 수술 시 환자가 움직이거나 협조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출혈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방법으로는 혀 아랫면에 붙어있는 설소대를 잘라내는 설소대 절제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설소대 안쪽의 혀 근육 일부를 같이 절제해 주기도 합니다. 설소대를 잘라낸 후 절제 부위를 녹는 실로 봉합하여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수술 후 특별한 부작용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한편, 발음이 완전히 형성된 이후 연령의 환자에서는 경우에 따라 수술 후 발음 교정을 위한 언어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소대단축증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한다면 수술은 언제 해줘야 하나요?

설소대단축증 수술 시기 또한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편입니다.

출생 시에 혀는 상당수에서 짧은 편이며, 설소대가 향후 혀 운동에 장애를 줄지는 출생 직후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아기에 수유를 할 때 젖꼭지나 젖병을 깊게 물지 못하고 자꾸 빠지거나, 분유가 새는 경우, 체중이 잘 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나이가 어리더라도 조기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에서는 설소대단축증이 발음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나, 정상 소아도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숙달된 발음을 익힐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부정확한 발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ㅅ' 발음을 완전히 숙달하는 연령 시기는 만 6세, 'ㄹ' 발음은 만 5세이며, 언어의 발달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발음 이상의 원인이 설소대단축증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확한 발음을 보이면서 설소대단축증이 의심되는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수술의 필요성 여부 및 수술 시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원광대학교병원에서는 수면마취로도 설소대단축증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전신마취와는 다른 것인가요?

전신마취는 깊은 수준의 진정을 의미하며, 의식이 없고, 자발호흡이 없어 입을 통한 기관삽관과 기계호흡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수면마취는 얕은 수준의 진정을 의미하며, 전신마취에 비해 적은 양의 약제를 투여해 얕은 수면을 유지하게 하고, 무엇보다 환자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어 기관삽관 및 기계호흡이 필요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수면마취에 사용하는 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약물 작용시간이 짧아 수술 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마취를 위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수술 전 과정 동안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전문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 합니다.

이와같이 수면마취는 전신마취와 동등한 마취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전신마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위험도를 낮출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설소대단축증 수술은 마취 시간을 제외한 수술 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게 소요되며,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통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여 병원에 내원하는 보호자들은 대개 수술 자체보다 전신마취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호소하곤 합니다.

원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과 함께 설소대단축증 수술을 수면마취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수술을 포함한 복잡한 설소대단축증 수술도 수면마취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정확한 발음을 보이면서 설소대단축증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시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수술의 필요성 여부 및 수술 시기에 대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달 의 법 문

만병통치약

"눈을 감고 전체를 나 하나로 보고 내가 온 천지에 가득 찬 상태를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상태가 바로 진짜 나입니다."

오타원 **장오성** 교무

이 세상이 문제 없었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없이 전쟁도 없고 일인당 국민소득도 높고 복지가 최고도로 갖춰져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문제이고 사는게 괴롭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문제가 있어서 괴롭다고 믿고 삽니다.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만 바꾸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생각의 장난에 빠지지 않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생각을 잘 지켜보고 바꾸는 것이 마음의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사람도 깊은 잠에 빠져있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생각이 멈추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생각할 때만 있습니다. 그 자체로 절대적인 괴로움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다 다른 거 같지만 모든 문제가 다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행복하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없애야 행복하다'하는 설정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런 생각놀음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주어도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가지려는 그 설정 때문에 일체 모든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생길 때에는 생각을 돌리는 것이 처방입니다. 돌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선, 오감의 대상이 나를 괴롭히면 이렇게 최면을 걸어보세요.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정말 좋아한다' 하면서 최면을 걸 듯, 마인드컨트롤을 해보세요.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괴로움은 눈 귀 코 입 몸 의식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눈으로, 귀로, 코로, 맛으로, 감촉으로, 의식으로 괴로움이 발생할 때 그때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보이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이렇게 최면을 걸어 보세요. 눈을 감고 '나는 그를, 이것을 좋아한다, 정말 좋아한다' 하면서 실제로 강력하게 그렇게 믿어보세요. 오감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해 그것과 하나라고 강력히 선언하고 믿고 느껴보세요. 괴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소리나 냄새나 촉감이나 다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냄새에 괴로울 때, 냄새와 나는 하나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서 싫은 냄새가 나는데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앉은 자리에서 '냄새와 나는 하나다', 소리가 괴롭힐 때 '소리와 나는 하나다' 하고 소리 자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몸에 어떤 감촉이나 통증이 있을 때에도 '통증과 나는 하나다, 아픔과 하나다'하고 실제로 강력하게 느껴보세요. 통증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미운 사람도 그와 내가 하나라고 강력하게 여겨보세요. 모든 병이 해결이 됩니다.

둘로 나눠 상대를 지을 때만 모든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원래 일체만물은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인데 상대를 지으니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둘이 아니니, 고통을 느끼는 나와 고통을 주는 그것이 다 나임을 알게 됩니다. 상대가 사라지니 모든 고가 사라집니다. 괴로움을 주는자도 괴로움을 느끼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눈을 감고 전체를 나 하나로 보고 내가 온 천지에 가득 찬 상태를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상태가 바로 진짜 나입니다. 나 하나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천상천하에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나입니다. 남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나입니다. 내가 우주에 가득하니 나는 곧 신이고 신이 곧 나입니다. 그것을 자꾸 되뇌이고 믿고 느껴보세요. 그것이 깨달음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극락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한해를 보내고 또 맞으며 이 만병통치약으로 일체 고통을 벗어나 극락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법회안내 ※한시적 Zoom법회 시행

1부 법회	매주 수요일 12:40
2부 법회	매주 수요일 16:00
영양팀 법회	매월 첫주 수요일 09:40 (장소 : 교직원 식당)

☎ 063-859-0012

원광대학교병원과 함께
국민 건강과 의학발전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광대학교병원은 여러분의 정성으로 보내주신 발전기금으로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원광대학교병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문의
원광대학교병원 총무팀 발전기금 담당
▶ TEL 063-859-2063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진찰료	본인부담금		VIP카드
			비급여	급여	
대상 / 누적 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및 직계포함)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10억	기부금액의 10% 이내(동일)	무료(무료)	무료(무료)	무료(무료)	발급(발급)
5억	기부금액의 10% 이내(동일)	무료(무료)	50%(50%)	50%(50%)	발급(발급)
3억	기부금액의 10% 이내(동일)	무료(무료)			발급(발급)
1억	기부금액의 10% 이내	무료			발급
5천만원	기부금액의 10% 이내	50%			발급
1천만원	기부금액의 10% 이내				발급
5백만원	기부금액의 10% 이내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VIP카드 발급 혜택 : 전용 창구 개설 및 무료주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행복한 2022년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간절히 바라는 새해 소망

jaedeok shim
의료진분들의 봉사, 헌신. 그 노력의 [가치]를 [같이] 응원합니다!

LEE JI HOON
이제 앞으로 아이도 세상에 빛을 보게 될텐데 내년에는 우리 아이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inna
내년에는 코로나! 제발 종식되길 바라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 무엇보다 중요한 제 소망입니다!

매리
2022년은 새로 태어나는 돌담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jjstar888
다가오는 2022년에는 우리 모두 건강한 세상에서 밝은 기운으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랜드
코로나로 누구보다 힘드셨을 의료진분들 정말 많이 응원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많으셨어요.

헬레나아
원광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 많은분들에게 사랑받길 바랍니다.

이꿀곰탱
임인년에도 많은분들이 원광대학교병원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

sy p
2022년도 모두 건강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분들 항상 감사드려요.

유리달빛
2022년에는 꼭 가고싶은 회사에 취업을 하는게 큰 목표이자 소망입니다!

Soft Run
내년 2022년 코로나 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다시 우리들의 원래 일상으로 돌아오고,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빛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쑹쑹
새해에는 코로나 시국 끝나고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요나
부디 2022년은 코로나가 없어지고 일하시는 것도 덜 힘드시길 응원합니다.

임유리
내년에는 축하받으며 결혼식도 하고 알콩달콩 예쁜 신혼생활 즐기고 싶어요.

종합건강증진센터	063)859-112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063)859-1991	권역응급의료센터	063)859-1169
권역외상센터	063)859-1188	응급의료전용헬기	063)837-8334	고압산소치료실	063)859-1069
암센터	063)859-1180	진료협력센터	063)859-2585	국제진료협력센터	063)859-0123
신생아집중치료센터	063)859-1506	전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063)859-0050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063)859-1375
전북금연지원센터	063)859-2400				

대표전화/전화예약
1577-3773

발행인 윤권하 **편집·기획** 홍보팀 최홍택, 문민선, 김지선 T.063-859-2023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대표전화 1577-3773**
명예기자단 강선아, 강수정, 김승규, 김재욱, 김현아, 두유림, 류근휘, 박상윤, 임미영, 조유리, 채수민, 최은현, 황현희